

SERIAL

Haksaeŋ hoebo.† no. 10

학생회보

제 10호

워싱턴주 한국학생회 발행

BOX 123 #300 HUB U.W.

1974. 5월



이날의

특검

우리는 소위 지식인이 丁史發展의 창조적 역할을 담당
해야 하며 이점에서 많은바 使命에 투철해야 한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지난 1.2년간 이곳을 방문한 지식인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이번 주미대사와의 對談(?)를 통해서 이같은 단순한 결론
까지 結論을 근본적으로 再考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아니 이제는 환경을 내어
지식인들이 오히려 丁史에 逆行하는 역할을 하거나 參與하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는 어찌된 일인가?

一端的인 이유는 우리가 적지 않은 期待와 존경을 가졌던 一部分 지식인
들이 변절에 기인한다. 즉 自由民主主義 至上의 論理가 순식간에 形骸조차
분분명한 「韓國的 民主主義」의 용어로 바뀌고, 法의 존엄성을 강조하던
그들은 이제 모든 法을 초월하는 實權權力을 장악한다. 양심과 眞理에
충실한 지식인으로서의 고연과 도덕적 판단은 간데 없고, 「이데올로기」로서의
등한한 利害와 지식의 동원이 앞서지 않는다!

물론 엄격히 말해서 그들은 지식인 「출신」이지 이미 「지식인」은 아니다. 따라서
채 지식인들의 變身까지 변절에 대해서 슬픔과 분노를 느끼기에 앞서, 이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에서 더욱 큰 위험을 느껴야 할지 모른다. 그중의 하나는 그들의 입장이
되면 누구든 변수 있겠느냐는 식의 너그러운(?) 理解心이다.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들
스스로도 언젠가 기회만 오면 實權權力을 위한 지식제공의 기술자로 타락할지도
모르다는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있지 않은가. 권력의 쾌락이 우리의 양심을
마취시키기 이전에 우리 자신 양심을 마취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짧은 지식인 속에 잠재한다고 할때 우리는 더욱 어두운 前途를
예감하는 것이다.

오전대 權力에 무지로 동원되었든, 스스로 참여하든, 항상 兇수는
존재하며 그 결과에 있어 利害가 없다.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지식인의 역할과 사명을 규정하며, 참여의 명확한 線과
지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가에 있다. 지식인이 과연 창조적이거나
또는 역사에 逆行하는 역할을 맡게 되느냐의 여부도 이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학생회 봄 야유회

학생회는 오는 30일(목·memorial day 휴일) 1시 부터 '두드랜드' 공원 에서 야유회를 갖는다. 이날 한국학을 공부하는 미국학생도 참가하기를 희망 하고 있는데, 미리 연락을 받지 못한 분 중에서 개인적으로 참가를 원하는 분은 543-3964, 633-5236, 633-3792 로 미리 연락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날 소프트볼, 테니스, 배구 등 각 운동 종목에 대한 시상도 있을 계획이며, 저녁 식사는 각자 지참, 물고기는 학생회에서 준비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불)

북서부지역 과학협 결성

북서부지역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 (K.S.E.A.) 가 지난 3월 결성되어 그동안 두차례의 원제회를 가졌는데, 대학원 이상의 과학계 학생여러분의 참여 를 바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섭 지부장 (255-6127) 이숙모 총무 (485-4415) 에 문의 희망.

합병률 주미대사 방문

지난 5월 6일 HUB에서 '스포츠인 EXPO' 개관식 참석일에 이곳을 방문한 합대사를 모시고 잔치판 토론회를 가졌다.

73-4년 결산 학생총회

학생회 73-74년 승계를 마무리 짓는 학생총회가 6월 19일(수) 기시 HUB 309호에서 열릴 예정 으로, 특히 회원 대다수의 참석이 희망된다. 내년도 학생회장단 선출 을 광범한 후보추천도 아울러 부탁 드린다.

제2회 '타코마' ASIAN DAY

타코마 ASIAN AMERICAN ALLIANCE 가 주최하는 제2회 아시아인의 날이 오는 25일 타코마 COMMUNITY HOUSE 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해 이병원형, 왕현철형이 참가, 국악과 서원도시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학생여러분의 참석 과 후원을 희망하고 있다.

한인의 밤 개최

한인회관 설치위원회는 6월 8일(토) 오후 7시 시애틀 센터에서 여름이리랑 파티 를 개최한다. 회비는 5불.

시애틀·벤쿠버 친선운동회

연례 행사인 시애틀·벤쿠버 친선 야유회 겸 운동회가 한인회주최로 6월 30일 '두드랜드' 공원에서 열릴 예정.

—◇—◇— 이 소식

저 소식 —◇—◇—

○ 회원 動靜

김홍기형 : E.O.C. (Employment Opportunity Center) 카운슬러로 활약중. 한인교포 직업 보도, 알선에 대한 정보문의를 모방하고 있다. office 전화는 725-8200

박기홍형 : general을 마치고 요즘 논문준비와 문헌연습에 열중하시느중.

유태익형 : preliminary를 끝내고, 이어 여름 東高 학회제를 논문준비중.

이병원형 : 박사논문 마무리와 「그로브」 음악사전 국악편 집필로 근후 운동(?)이 될 지경. 6월 중순 시애틀을 떠나실 예정이다.

오근호형 : 5월초 「시카고」 학회에 다녀오신 뒤 매일아침 테니스 수련에 분망(?)

최정민형 : 졸업후 「오하이오」 주립대 대학원으로,

이정형형 : 졸업후 「보스턴」대 대학원으로,

김도훈형 : 「위스컨신」대에 박사과정하여 각각 온여름 시애틀을 하직하실 예정.

백광호형 : 부친상을 입으셨지도 오래. 새주소 전화는 329-5573

○ 새전화번호

이익환형	365-1360
성민경형	522-1760
서진영형	525-8656
성락우(정영선)형	632-7090
조영형	524-8057
채석원형	524-2675
왕한철형	633-5948

○ 경사

이익환형 (씨남) } 을 얻어 baby
권영길형 (아드남) } -sitting에
채석원형 (아드남) } 분망중.

○ 오신분 · 오실분

곽수일형 : 논문제출차 오셔서 2.3개월간 체류예정. 연락은 권영길형 맥으로.

변재현형 : 6월 15일경 귀 시애틀예정

○ 그동안 떠나신분

박우선형 : 샌디아고로

장주환형 : 뉴욕으로.

「知識」의 小論

서 언

여기서 우리는 「知識」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물가말부 하자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미 다각적인 分析이 내려졌고 광범위한 討論이 되어왔던 만큼 새로운 「知識」論을 提示 할만한 것도 별로 없으리 같나. 다만 우리의 관심사는 「知識」의 現實參與라는 특정한 一面에 국한해서 「知識」의 廣汎性이라 할까, 혹은 「知識」의 實徵性이라 할까 하는 斷斷을 살펴보고 있다.

「知識」의 現實參與이라 하면은 4.19 이후 한때 大學街의 酒場에서 흔히 들어보았던 어딘지 설익은 듯하면서 신부한듯한 論議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허구의 專論에서부터 Max Weber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혹은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와 같이 東西洋을 막론하고 恒時 爭論으로 등장했던 이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知識」과 政治權力과의 微妙한 關係는 모든 사람을 특히 社會科學者들의 중요한 관심사중의 하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4.19 이후 「知識」들이 대거 政治界에로 接觸 또는 移行으로 轉入, 參與함으로써 「지식의 현실참여」는 그들의 過程에 대한 評價와 더불어 重大한 爭論으로 아직도 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論議의 核心이 은연에 도어 있거나 誤解되어 있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우선 論議 자체가 眞正을 誤導하고 있다는 뜻을 指適해야 될 것 같다. 흔히들 「知識」이 現實에 參與해야 한다면 또는 現實參與에서 오는 影響을 피해야 한다는 식으로 爭論의 핵심을 해석하는 傾向이 있다. 現實參與를 及稱하는 사람들에게 의하면 現實의 境界의 中間의 境界는 근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知識」은 現實의 境界가 지니고 있는 混沌과 無秩序, 慾望과 利害의 不均衡에서 오는 變遷에 가능한 한 影響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인이 현실에 밀착해 버릴때 功利的인 判斷을 내릴수 없게 되며 現實을 歪曲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학문의 세계가 지니는 특성을 스스로 破壞한다는 것이다. 反面에 현실참여를 強유하는 사람들은 「知識」들의 役割 특히 現實改造를 해간다는 점에서 어떤 使命感 비슷한 主張을 하곤 한다. 大衆의 利害를 尊重한다든가, 또는 國家發展에 기여한다든가 혹은 거창하게 世界平和와 人類

福仙을 대동시킨다는 영분을 내세우면서 현실참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칭백한 인제나' 다른가 '非生産的인 愚劣者' 이라고 비난하고 지식인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現實界에서 생존하며 現實界 斗争에 적극참여하며 특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식인이 모두 백이. 숙제와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知識人이라고 해서 현
실사회와 역사라는 레두리에서 벗어나 고담순동으로만 활자롭게 고일할수 있는
청담타 일수만도 없는 데에 現實界參與을 해야 한다는니 하지 말아야 한다는니 하는
논쟁 소차가 웃은 일이기도 하거니와 흔히 守己의 境界와 現實界의 境界를 애써
구별하고 가장 崇高的이고 中道的인 것처럼 몸을 사리는 것도 어차면 現實界
정면하는勇氣가 없어서 이거나 또는 암암리에 高貴의 次序를 긍정하면
서도 社會主義的인 態度를 취하려 하려서 守己하는 知識人의 어떤
屬性을 보여주는 예중에 하나일수도 있을 것 같다. 反面에 現實界參與을 주장
하고 지식인의 使命이라든가 使命感 같은 것만을 強調하는 論理속에 知識人
이 일반대중과 달라야 한다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自給自足的 지식인의
모만성이 숨어있고 설도 超過할수 없다. 흡사 지식인이란 무슨 特殊
材料로 만들어진 시이처럼 일반대중과 구별하는 하여 '知識人' 이 자신들
의 특성이니, 따라서 자신들만이 가장 現實界를 崇高的으로 '제분수' 할수
있다는 自覺을 하는 경우도 따지고 보면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지식인
자신들의 현실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기도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해서 우리는 知識人의 특이성인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식인도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관계를 가지며,
그것은 知識人이 지닌 어떤 특이한 특성때문에 農夫이나 軍人이 가지는
現實界의 關係와 구별된다는 것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知識人은 知識人
이 현실참여를 해야 하는냐 하지 말아야 하는냐에 있지 않고 지식인의 현실적
관계는 어떤 것이냐, 또 그런 관계를 가지게 하는 지식인 특유의 특성이 무엇이나
에 있는지도 것이다.

우선 知識人에 대한 通俗的인 이미지를 용해하고 그 특성을 생각해 보자.
어느 사회에서나 우리는 지식인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발전한다. 東洋社會의
'君子'에 대한 이미지에 부각되어 있듯이 지식인은 社會生活에 있어서
귀감이 되며 理想의 先驅자이며, 高貴의 次序를 해독하는 그야말로
文明의 創造者이며 社會의良心이라든가 肯綮的인 一面이 있는가 하면,
燕岩先生의 소설에서 예리하게 풍자되었듯이 모든 형태의 權力에 악한

것이 시간의 변화에 구애 없이 무엇이 누구에게나 - 통한 것이라면 문제는 간단해지겠으나, 불행하게도(?) 유혹이나 ideology의 추구를 제외하러는 선택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의 추구는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식학자들은 늘 현실 속에서 흔히 경험되고 있는 절대적 정의나 가치가 변해나가는 것에 회의하러 비판하며 동조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라 지식학자들에게 사회적인 존경이나가 몰락이나가 하러 것이 없나라 것이 아니다. 지식학자들도 모든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그가 사는 사회의 변이와 현실의 변화에 주의를 받고 있으며 어떤 형편든지 존경이나가 몰락이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사실 막기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의 가치가 불충족한 것이란 자의적인 것을 인정하러 있다는 점에서 사회생활가운데에 독특한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가령 회사이 자기의 이익을 대중의 이익과 동일함을 주장하러 정치인이 자신의 권력을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중요하러 있을 때와 같은 경우, 자신은 물론 해야 할 현실적 이익이 없러 자신의 영역이 언제나 이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의해서 지식인들이 새빨라 변신하러 상인의 이익 혹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의 이익을 강력히 대변하러 나서는 것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모순적이란 추론하러 지식학자들이 스스로 자신을背叛하러 위선과 기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이 ideologue로 轉身한 '前職·知識人'들의 과정을 가리러 사회의 지식학자를 이야기 하러는 긍정하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러 할 것 같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권력'이 가지는 '권력'과 '체제'의 '변동'을 모기했고 마다하러 스스로 지식학자 이라든 '변동'에 의하러 이룰 것 이기 때문이다. 회사이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정치 권력 지식학자 이라든 해서 영원히 지식인으로 남아있으라든 법은 없러지만 문제는 그런 그런 '前職·知識人'들이 아직도 '知識人'으로 남아있러는 처럼 행동하러는 있는 것 같다. 이들의 그러한 '魔術的' 행동은 종종 지식학자들에게 대한 우리의 '理解'를 '誤解'하러 많은 편견을 소장하러는 결과를 가져와나라 것을 지적하러 할 것 같다.

따라하러 지식학자에 대한 정당한 이해는 만일 그들의 특징이 영원한 회의와 영원한 '변동'에 있러는 점을 이해하러다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식학자들은 '변동'의 '변동'성, '변동'의 '변동'성을 알러이기 때문에 때로는 절대적인 '변동'에 근거를 둔 강력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러 수제하는 경우도 있고 '변동'추구는 언제나 불충족하러는 것을 알러이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만 도는 '변동'은 존재'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식의 '변동'적인 역할은 바로 이와같은 '변동'무단하러 '변동'기만 하러는 데에 있러는 데에 의하러 할 것이다. 어떤 계층이 그들의 '변동'의 이익을 '변동'처치 하러 할 때, 예컨대 어떤 정치인이 국가의 이익이라든 이름으로 절대적 동의를 강요할 때 그 행위에 숨어있러는 맥락을 타헤치러 역사나든 문맥 속에서 해독하러으로써 보다 선명하게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러는 점에서 지식학자 특유의 공헌이 있러는 데에 있러는 데에 있러는 데에 있다. 한마디로 지식학자의 '변동'적 역할은 '변동'하러 '변동'하러는 데에 있러는 데에 있러는 데에 있다.

시| 아들 지역에 사랑의 빛을 밝히고 세상이 소금을 제공해 주는 교회가 넷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지역의 우리 교도의 수가 증가할로써 있으며, 교도들의 거처가 늘니 흐리져 있는 것을 감안해 볼때, 옛부터 敬天愛人 사상이 동후했던 우리 한인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며 교우일로 경하해 과지 않는다.

외국영토에서의 한인교회의 역할과 기능은 그 사적사실을 적당히 들추지 않으나 매우 중요했던 것이니, 美韓 이민사를 보더라도 교회의 역할은 우리 선배들의 이상 생활의 면모를 되찾고 귀찮이가 되었던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요즈음 이것 한인사회에서 망망 우리 한인교회의 참 기능이 관하여 얘기가 오간 있는 것은 분수 있는데, 물론 이와 같은 논리는 보다 나은 발전이로써 무한한 가능성의 시사인 것으로 보아 오히려 자랑할 만 할로 생각도 되나 차례이 전 목회자, 교인들, 그리고 비교인 교도 학생들이 모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본직할 문제로 생각된다. "교회가 여럿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살고 있는 한인사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었다.", "교회때문에 더 고장은 잦아오신 손님에게도 큰 불편이 되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꼭꼭 등등의 얘기는 자주 들리게 된다.

교회와 사회

예수께서는 「너희는 사랑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다 라고 교훈하셨다. 빛은 세상이 어두워서 필요한 것이며, 소금은 그 짠맛이 있어야 소금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의 교훈을 믿고 실천해야 할 교회와 교인들이 모든 이 세대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봄이 우선일 것이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절대로 어떤 개인적 명달을 위해서, 특성의 사익사욕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삼자라도 부끄러운 명백한 사실이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모든 세계 모든 문제의 본인을 "perfect means and confused ends" 라는 말로 표현 한적이 있다. 인간을 보다 더 인간답게 하는 원인이 자기의 비인간화 현상에서 인간을 구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다. 소위 상황윤리(Situational ethic) 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점을 강조해 왔다. 물건은, 물질은 사멸해야 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데 모든 이사회는 이 공식을 거꾸로 바꿔 놓았는데 그 병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명백한 관할 할것이 아닌가? 즉 교회는 교회 지성을 위하여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에 이것 전체 한인사회, 전체 교도를 떠나서 그 존재를 생각할수 없으며, 동포사회속에 같이 뿌리뿌근 기쁨과 슬픔은 같이 나누는 때에 참 존엄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개체적이긴 하지만 체적존재가 아나기 때문에 ...

이기주의, 공동체 형성

중세기의 개인주의 사상은 사(私)적이란 말과 개체적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런데 원래 사적(Private)이란 말은 배양한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즉 타인을 배제하면서, 타인과의 인연을 수탈하는 태도를 말한다. 개체(Individual) 라는 말은 원래 분할불가능이란 뜻을 가진 근지이다. 이것은 나(我) 자체가

분할 환수 보다도, 분할하여서도 결국 진실한 생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타자의 공동적 생활 속에서만 확립되는 삶의 방식은 의미 있는 것이다.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생을 배제적인, 자아 관찰적인, 찬란적인 생의 태도이며 개체적이라고 할 때에는 공동체가 있어서 타자의 끊임 없는 진실한 사랑에 꽃을 피운 진실한 참된 고독성을 뜻한다. 이 양자에 걸친 환수 태도는 참되겠다. 전자는 나체의 초인적인 극한의 이기주의를 뜻하며 후자는 전자의 공동체 근력의 개성을 넘어서는 협의 가능성의 요소인 환수 태도이다. 우리는 전자의 배타적, 자아 관찰적 야망이 종양에는 자아 생명의 비참한 타락으로 인도하는 생의 역사를 통하여 배워왔다.

너와 나, 이회와 회회

인간사회의 변질은 관계에 있었다. 이 관계 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와 타자 사이의 다른 다른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너 너는 나" 라는 약속은 우리를 하여금 상호간에 존경과 상호성에서 성장케 한다. 부버(Martin Buber)의 "너와 나 (I and Thou)"에서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다. 회회간의 자리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를 가까워지게 한다. 서양 철학의 「총은음이 총은 어찌든 안는다」는 말이 있다. 「나와 너는 회회하고 회회를 모르고 회회는 회회하고 회회한다」는 말이 있다. 각기 개성이 다른 개인간의, 특성이 다른, 지역이 다른 회회간이 회차 회회하고 회회하는 것은 무엇이든 아니다. 또 이 회회하는 문제에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왜? 우리 모두 한민 동토사회의 인연이다. 우리 한민 회회들은 우리들의 공동의 자원이다.

계방된 회회

우리의 주권이나 인격은 타인의 사랑이나 인격의 부재에서 온다. 회회를 가리켜 상대방에 나 자신을 계방하는 인이 된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을 타인과 분담하는 도량이 있는데 있다.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안고 나 자신을 그에게 면이 보이면 적어도 대화는 시작이 된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할 때 가장 바깥의 두터에서 상대방으로 권받지 권받지 중간지점에서 만나는 것이다. 개인간의 회회간이 만났어야 한다. 중간지점 사이, 이면 상대방 있는 곳까지 왜 못 가는가? 배우는 것은 모든 것의 한 단면이 있으면 심리사비 기증, 결국은 단란한 한 단면이 있으면 속물사비 우리 한 단면이 없었는가? 원만 동토는, 회회가 갖기 어렵었다. 부활된 공동체에는 왜 선형이 안되었는지 궁금하다. 어디서 오려면 어떻게, 누구 선형은 누구 기증 하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회하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

나는 총은하는 두루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 회회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고린도전서에서 교훈한 사랑은 가르치는 배우자. 내가 두루 사랑하게 되면 그의 회회와 회회, 그의 공동체 회회와 그의 재주와 목적이 무엇이든 모르고 할 것이다. 또 상대방에게도 나 자신의 이기적인 안수있도록 허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회적 사랑은 남에게 내 사랑을 면히 보일뿐 아니라. 그 자는 자신을 면히 보일 때에 받아 들일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 비행기속 寓語 -

유창림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나이
 삼십 되도록 홀몸으로 지낼때 괜
 히 못사람이 불쌍하게 보는것 같아
 결혼전 Kiss를 감미로워 눈을 감고
 했듯이 결혼도 눈을 감고 해버린
 것이 1년반 전의 일이다. 성격 탓
 으로 좋은 날 개처럼 쏘다니던
 승관이 그래도 마나님 눈치가 시
 워 창을때면 dish wash도 해가며
 생활태도가 많이 바뀌어 사정에
 따라선 본인아니게 정안에서 쫓
 병 하나 거느리고 가장 노릇을 하
 며 무리한 시간을 가질때도 없지
 않다 쫓병이래야 하루상의
 기회만 노리는 위험한 존재지만
 그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짚은
 주말을 길게. 아파트 내에서 지내
 면서도 이것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겠지 자위를 해본다. 활
 댄니 손에 이끌려 드나들듯 교외도

개근을 하면서. 이쯤되면 제만
 에는 "짜충기 보충"을 하는것 같
 이 보이나 그래도 머리 속에서는
 온갖 장생각이 오락가락하고 그
 런중에 잊어지는 걸 잊는 실수도
 없지 않아 지난 후에는 여차주나가
 갔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가슴 속
 에서 stranger 처럼 쳐다보기도
 한 두번이 아니다.

3년이 훨씬 지나버린 옛
 날 이야기가 있다. 지금은 실없는
 일화 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는 그런
 구애를 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응중한 사회部員에 속했는 모
 양이다.

그러니까 70년 8월말 미주에
 건너 올때다. 아마 사무작으로
 유학생 여권을 나에게 내준것이 현
 정권의 큰 실책였는지 모르나 여
 하튼 영문의 뜻을 풀고 떠나야할
 몸이 경친 송별화로 김포공항
 을 떠날때는 두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 태평양
 을 건너 동안은 줄곧 늘어지게 잠만

갔다 그런 중에도 기억나는 것은
동행에서 갈아탄 Pan Am 747
에서 제일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
던 사람이 영광스럽게도 나왔다.
용무가 끝나자 호화판 화장실
속을 둘러 볼 여유가 있어. 아직
술기운이 몽롱한 정신 가운데도
항수병이 눈에 띄었다. 비싼
비행기 값주고 짐감게 안 사용
할수도 없는 처지라 한 두번
웃에 뿌리고는 동의면서 보니 그런
병이 그 하나 뿐이 아니고 케이스
속에 1 dozen이 가르런히 놓여있다.
얼핏 고향에 그리 생각이 났지만 옛
날부터 한국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엔 휴지가 남아나질 않는다. 영
진소릴 듣기 싫어 눈 딱감고 나와
버렸다

추산 막걸리 마시고 미제
「장보」 비행기를 탔으나 그 후
조화가 뱃속에서 우리 일어나는지
얼마 안되어 큰 기침 한번 하고는
다시 일어났다. 그런데 진짜 큰
변화가 화장실 속에 있었다.

그 많은 항수병이 눈을 딱감어도
씻으 듯이 없어지고 처음 쓰던 하
나와 깨진 병이 빈 통속에 외
롭게 남아있다. 주소와 본국에
생년 월일까지 새삼스레 적어
주던 그리 생각이 또 한번 떠
오른다. 어떤 것도 눈물도
없는 친구 인지는 몰라도 하나만
남겨 놓고 갔어도 닥아오는 생일
선물을 썩도 내서 안사도 될
것인데 그걸 몽땅 가져가다니...
경병엔 과점 죄도 없나.
가뚝이나 불편한 숙이 간사기
더 심한것 같다. 제자리로
돌아오며 뒤편은 비행기 속을 다
 훑어봐도 이 암체 군쟁이를 모두
시침 뚝 따고 잠등은 제 처다
보지도 않는다. 희고, 검고, 노
랏고꽃 따지기 전에 대다수가
환등이나 아무래도 원망은 확률
이 많은 곳으로 간다 한 걸음
터벅이 현이를 들어내고 내 속을
이해 하겠다는 듯이 웃어 준다.
제끼랄 영전 근로를 꾸릴때

우려야 하는 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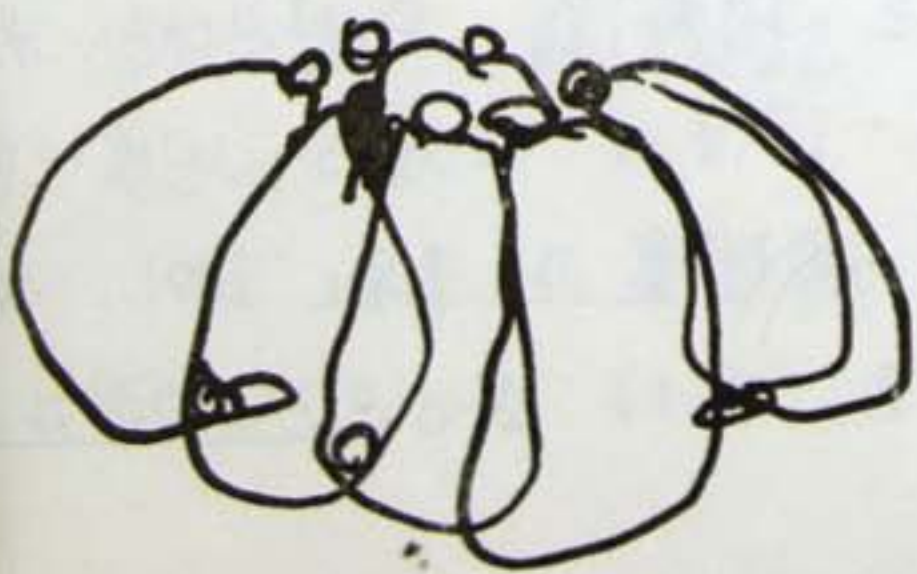
하와이를 거쳐 L.A. 에 도착해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 탄 것이 이른 아침이었다. '테네시' 까지 가야하므로 아직도 갈길은 멀다.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아침 식사가 나왔다. 원래 우려야 아침 우리 고통 받을 것이고 뱃힘으로 하루 일을 시작하던 중성이라 빵 몇조각 뜯어 먹은 것이 배에 기별도 안 간다. 관공 인심처럼 떠돌겠느냐는 인사치레 한마디 없이 tray를 걷어가는 stewardess가 앞뒤로 조차한다. 하지만 유학까지 가는 한국선사가 배부른 척 해야지 별수없는 거고 그래도 그것도 먹었다고 노곤해서 잠이나 또 잘 준비를 하는데 Memphis에 도착해서 또 다른 비행기로 옮겨 왔다. 무거운 것은 들고 가야 돈이 털드다고 터지도록 책만 넣은 손가방이 옆에 무겁게 느껴진다.

허나 놀라운 것은 아직도 아침 때 인지라 이 비행기에서 도 오르자마자 식사가 시작되었다. 그때야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고향을 권도 못 알아 듣던 영어지만 분위기를 보아하니 새로 이곳에서 탄 손님들 위해 아침이 나오는 모양 같았다. 점심 때가 오는 stewardess가 내 앞까지 와서야 자는 체 하던 눈을 뜨고 보아하니 수터분할 얼굴에 다소 용기를 얻어 모르노체 나도 meal을 받을 준비를 했다. 관상대로 순환 이 아가씨 두말 없이 serve 해 준다.

두번이나 아침을 먹어 주는 등 하지만 총칭도 양반 외안기가 있어서 tray를 걷어가는 stewardess에게 실은 두번째 아침이라고 말했더니 그 아가씨 왠 괜찮다고 하며 저쪽 편에 있는 땡보 아가씨도 두번째라고 웃으면서 손으로 가르쳐 준다. 나는 말이 약해 울었으나 그 땡보 아가씨는 기분

종게 늘어났다. 아무래도 그 친구가 태평양을 건너 오면서 상수 병을 실례 한것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 그런지 이 쪽편 주머니가 축 쳐진것이 유난히 볼록하게 보인다.

(이런글을 써놓고 wife에게 일차 컴필을 오칭 했더니 말씀이 이런걸 글이라고 썼느냐고 거운 한번 더 쳐다보라는 부부다. 제발 회보에는 내지 말라는 권고도 무릅쓰고 약속을 해서 할수 있는 내 형편이니 회보가 나온후 한 두번은 또 눈치 보아가며 dish wash를 해야 할 판이다. 그것 보다는 회보에 실린 글을 읽고 내 자선이 거운 앞으로 같것임에 틀림없다.)
(식물공학)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 지난주 일시귀국신청서, 수학비환급신청서, 여권유료기간신청서, 해외이주 허가신청서,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등 서류가 도착, 필요한 화외의 연락을 바라고 있다. 연락은 회장(543-3964) 부회장(633-5236)에게.

또한 4월1일을 기해 영사관제 각종수수료가 인상되었는데 그 비용은 아래와 같다. (관호안은 종전요금)

- 학생여권 연장 1분 (")
- 일시귀국 및 입국신고 5분 (1분)
- 경유지 추가 및 변경 3분 (2분)
- 목적지 추가 및 변경 6분 (5분)
- 동반자 추가 및 변경 4분 (4분)

원고 모 집

△ 마감 : 6월 말

△ 종류 : 수필, 노란, 여행기, 독서소감, 광고사항 기타.

△ 우송주소 : KOREAN STUDENT ASSO.
BOX 123 # 300
HUB, Univ. of Wash.



- 사회학 -

金 實 東

近代意味의 사회학은 約 100余年의
史를 가진 社會科學의 一部分으로서
August Comte 를 始祖로 한다.

社會學의 史的 根源은 哲學을
背景으로 하여 發展하여 왔고 Comte에
이르러 소위 實證的 哲學 (Positive
Philosophy) 이란 테두리 안에서 現在
社會學의 基礎가 마련 되었다.

가장 간단히 社會學을 定義하면
社會學이란 "每日, 反覆하여, 一般적으로,
그리고 平均적으로" 일어나는 個人이나
團體에 關한 모든 現象을 體系化
하여 科學적으로 究明하는 學問인
것이다.

첫째, 社會學이 "社會現象을 科學的
으로 說明 내지 究明하는 學問" 이란
뜻에서 社會福祉 向上을 期하여
實踐에 옮기는 社會事業과 分별되나.

둘째, 社會學이 "社會現象을 體
系的이며 利學的으로 究明" 하는 뜻
에서 迷信이나 一般常識과 区別된다.
하기야 健全한 常識은 어떠한 分野를

莫論하고 知識의 基礎를 提供한다는
뜻에서는 社會學에서도 例外가 될 수
없으나 常識이란 時間과 空間에 따라
變하는 것이 常例이나 科學의 原則이
"原則的"으로 時間과 空間에 따라 變할
없어야 한다는 뜻에서 区別되어지는 것이

세째, 社會學이 "一般的이고 平均的
社會現象을 究明" 하는 뜻에서 特定되
있는 事件들을 究明하는 史學과 区
된다.

네째, 社會學이 科學적으로 究明
하는 뜻에서 "論理的으로만 現象을 究
하는 哲學과 区別되어 진다.

科學的이란 意味는 論理的인 것과 더
"實驗的" (Empirical) 인 뜻이 內
있음을 想記시키며 哲學에서는 實驗
考察 대신에 先驗的 (A priori)
考察에 따른 論理가 骨子인 것이다.

다섯째, 社會學이 "個人이나 團體
關한 모든 現象"을 究明한다는 뜻
"個人이나 團體의 心理的 現象만을
究明"하는 心理學과 区別되며,
價値觀을 究明하는 人類學과

되고, "個人이나 團體의 政治的 現象을" 究明하는 政治學과 關係 되고 또 "個人이나 團體의 經濟的 現象을 究明" 하는 經濟學과 關係 된다.

社會學이 "모든 現象"을 究明해 보겠
다는 뜻에서 상당히 野心的인 傾向으로
心作되었고 範圍를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즉 社會學이 一般的으로
넓은 範圍를 가지고 人間社會의 全體를
究明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社會學의 特
殊性인 것이다.

例를 들어서 社會學的인 傾向들이
서려한 것들이나? 社會學的 傾向
하지 考察은 對象이 "每日, 反復하여,
一般的이며 平均的"으로 일어나는 것
이므로 다음과 같은 傾向들이 틀에 맞은
것이다.

* 무엇 때문에 우리가 每日 講義를
듣러 學校를 왔다 갔다 해야 하
는가?

* 왜 美口 사람들은 아무 앞에서
코를 막 풀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韓口 사람은 失禮라고
생각하는가?

* 왜 運拳가 4年만에 꼭꼭
反復 되는가?

* 團體들의 構造와 形態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하여 지금처럼 되어 있는가? 등등.

上記의 傾向들이란 우리들이 항상 念頭에
두고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하여 이제 이미
생각조차 하지 않을 만큼 價值化한 것들인 것이
나, 社會學은 바로 이런 傾向들을 들추어
내어 그 理由를 究明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Sociology questions something
you don't question" or "Something that
was taken for granted."

社會學의 分野를 일별해 보면
理論分野 (組織理論派, 機能理論派,
形式主義派, 個人行動理論派, 意識理論派)
와 科學的 方法論을 爲主하여 都市社會學,
農村社會學, 社會心理學, 團體過程學,
職權社會學, 警察社會學, 犯罪社會學, 教育
社會學, 組織學, 行政組織學, 道德學,
制度學, 家庭社會學, 社會階級學, 人口學,
比較社會學, 音樂社會學, 餘暇社會學 (Sociology
of leisure), 實存社會學 (Sociology of
existentialism), 音樂社會學 (Sociology
of Music) 등 그 種類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散在하고 있다. (社會學科)

- Jogging (足蹴?) 論 -

유태의
 비대해직 보소라고는 부모나 다른
 형제들을 나무러 뒤쳐봐도 전혀 그
 가능성이 없는 내가 jogging을 시작
 하게 된 동기는 건강, 혹은 체중과 같은
 문제해결책과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데서 비롯됐다. 대학졸업 즈음 'daily'
 스포츠란에서 처음으로 jogging이라느
 낱선 단어가 눈에 띄었을때만 해도 운동
 이라고 하기에는 여간지 어색하게 들렸었다.
 그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어느 여름 6순
 도 넘어 보이는 (그러나 건간한 모습의) 노인
 이 아스팔트도 녹을 듯한 뜨거운 포도위를
 뛰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물론 footing
 의 무게감과 보잘것 없는 속도는 老年을
 속일수 없는 탓이었겠으나 특양을 아다하고
 땀을 뿌려가며 홀로 묵묵히 뛰고 있는
 그의 모습은, 몸보다 마음이 늙은이가
 흔한 주위 젊은 동호들에서 찾아보지
 못하던 새로운 像이었다. 동기가
 이렇게 엉뚱하였던 만큼 시작할 당시의
 실천도는 위부에 비례 늘 유지곤 했다.

그후 회수를 거듭하고 또 - 出題
 에 뛸수 있는 거리도 점차 늘려 가면서
 jogging 특유의 眞味를 몸으로 느껴

복수 있게 되니 오락살아 하던 다른
 잡운동(?)에서 자연 멀어지게 되었다.
 狂이 되기에는 아직도 실천력, 走力
 모든면에서 아직 부족하지만, 2년반
 여의 기간을 지속하여 오는 동안 jogging
 은 비보살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3.4일 계속 기음을 피거나
 간혹 과음을 하는 그 다음날에는 반의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니 jogging
 은 일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척도도 된다. 이러한 경험
 은 만능히 나 자신의 것이기도 하겠으나,
 동료 jogger 들로부터도 흔히 듣는바다.
 여기에서 그동안 뒤어보면서 스스로
 체득한 경험중의 몇가지를 추려 소개해
 보아도 별로 허위있는 얘기는 아니리라
 생각된다. (여라서 초보자는 그리 참고
 로 읽어주시기바라고 후 jogging 의
 연륜이 깊은 분은 단지 비교의 기준
 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한다.)

처음으로 시작했을 당시 한번에 약
 1마일 반이 보통이었다. 그때의 주
 코스는 하숙집과 학교를 연결하는
 길들이었는데 특히 가로수로 덮인
 유명한 17번가는 4계절의 변화를
 눈부시게 알려주는 맛이 있어 맞을수없다.

여하튼 세게 귀가길에 뛰고 있었으므로
절차 저녁 늦게나 밤에 뛰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 근처로 집을
옮긴 후에는 우선 그중은 17번가를 잃게
되었고, 한동안 어떻게 저핑제로 기어올
도 되었다. 생활이 불규칙해질수록
jogging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기
되어 다시 IMA 뒷편을 찾는 기회도
찾게 되었고 캠퍼스를 멀리 벗어나 산호등어
등 길을 연결하면서 한번에 8마일
까지 시도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하는 jogger들에게
복잡한 course의 거리는 우선
자신의 몸이 약 15분동안 쉬지 않고
계속 뛰며 (빠르긴 느리긴) 견딜수 있는
거리가 상례이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필
드를 택할 때에는 될수있는대로 도중
침으로 돌아올수 있는 지름길에 있을수록
좋은 것은 상식이겠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뛰는 동안의 호흡
조절인데 pace의 폭과 스피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two-in, one-out'
또는 'two-in, two-out'의 호흡법
중 자기에게 편한 것을 택하면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것을 택하든 호흡
조절을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하여 몸의

피로를 최소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몸의 상태와 의욕에
따라 2.5마일(단거리) 5마일(중거리)
8마일(장거리)을 번갈아 뛰곤 한다.
2.5마일 코스는 캠퍼스 외곽을 돌아
U. Village에서 45th bridge 언덕
(추풍령?)을 올라오는 것이다. 좀더 위쪽을
번다면 Univ. bridge를 건너 Red Robin
술집을 눈감고 지나 호젓한 길을 한동안 고생
하다보면 Jilly's가 나오고, 다시 이를
힘겹게 지나 Montlake - IMA -
소재 추풍령에 이르는 다채로운(?) 5마일
코스이며, 최장거리 8마일은 green
lake를 돌고 오는 위쪽의 코스이나
여력이 미약하거나 늦잠을 자도 지장
이 없을때 (따라서 가끔) 큰맘 먹고
뛰어볼만한 코스이다.

지난 겨울학기 큰 기쁨임에 조적되적이
있던 jogging team에 한번쯤 참가
했던 분들은 (그리고 특히 중도에 낙오
한 경험이 있는 분들) jogging의 진미를
아시리라 생각한다.

여하간 jogging은 만지 무체적인 단련
뿐 아니라 흥로인 코스를 뛰면서 여러가지
잡상을 떠올릴수 있는 기회도 되며, 후시
잘하면 기발한 참봉의(?) 사고의 斷片
도 얻을수 있을지도 모른다. 많 중도에
번지만 없다면... (기제과)



소리없이 이슬비가 내리고 있다. 아버님께 배달려 들어섰던
전통시장에서, 마냥 편하기만했던 나의 손을 꼭 잡아주던 그의 손길처럼
편안하게 나를 꼭 감싸고 있다.

이 낯선 도시에서 한가지 자신감 있는 것은 이쯤껏 반감에
내일이 낄다하고 비가 내리느냐는 사실이다. 밖으로 나가 우산을 펼쳐두는
그것으로 족하다. 「오늘도 또 비가 내리나?」 하고 우산을 부어놓은 하늘에서
내리오는 이 비가 그치려하는 것 같지가. 「딱뽕이 씻어주는 봄이 이겨나,
마음에 많은 찬사라도 해보려나, 지만여 햇볕처럼 생겼을 Los Angeles
에서, 가슴에 하늘은 쳐다보는 봉우처럼, 나는 아쉬워하던 것 같은 우산
신감을 느낄 수 있다. 하연없이 일년내내 내리느냐는 Seattle 비, 비에
불평이나 찬사를 해보든, 무슨 변화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소한 찬사라
익심스런 우렁찬번이나도 인간에게, 특히 가난한 신인생 학생부인
에게는 귀중한 작용을 해주기 어찌랴.

아침에 썰매방에 sandwich 봉투를 들고 학교로 가서,
도서관에 왔다가 지역이야 좋아하는 학생부인들은 기다려보려나 리우에
그리웠고, 벽에 걸린 시계반은 애뜻게 돌리게 쳐다보려나. 기다림으로
하루를 보내기에, 다정하게 불러주며 한하게 웃고 들어오던 그의
더욱더 반가우지도 모르겠다. 그리고는 어느 리우로 먹어보는 한성이라니
가사라를 나쁘지 못해 안타자르대로 정성껏 준비한 지역은 물론
한바디없이 웃고주길 씩씩 씩씩 슈인 씩씩감치이 보려나를 맛있게
비벼먹는 도둑의 좋아식조도양 캄스님께 먹여주시니 바느이 있느니?
찬사까지 해주시니, 가난의 먹구름으로 가리웠던 내바느를 안뜰리
가져보려나.

Seattle 나 Los Angeles를 안떠두었던 우체부 아저씨는
연성(?)으로 리우는 좀더 이해하게 되었고, 전통생활은 시작하려 이제
까지 한달. 어느 새벽, 리우 운동장에 나가 그이 우는 씩씩이
꽃아가는 람네기운동으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던 나의 Seattle에서의
새생활은, 우는 그이 썰매방속에 내일이 기대는 남고, 봄이다
같이 하루하루 정성이 가고 있다. (조영형의 부인)



환상 귀국

- 조미정 -

발등이 떨어진 불고개에만 여념이 없었던 때, 나도 언젠가 공부를 다 끝낸 뒤 여윌 때가, 그러나 좀 감상적인 기분에 젖어 지난날을 되돌아 볼 수 있을 때가 있으리라 하고 막연한 위로로 하던 생각이 난다. 아직 집을 꾸리 기엔 이르지만 '감상적 회고'쯤은 조금 성급하게 앞당겨 느껴봐도 무방하겠다.

비행기의 굉음이 밤하늘을 긋고 지나가면 눈물 때문에 지루해 빠진 나는 즐거운 재회를 상상할 뿐만 아니라 과연 무엇을 챙겨 들고 돌아 갈까를 골똘하게 생각하게 된다. 아마 그것은 공항에서 새금을 물어야 할 필요도 없겠고 한번 내려오지 않으면 무엇인지도 확실치 않은 생필품이므로 나는 어디까지나 느낌에 그치는 짐 정리를 한다.

그동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나의 전제지만 무언가 분명히 달라진 것 같았다. 으리라는 가정과 함께 한국에 가고 싶은 심정은 '상대적 확인'에 대한 갈망으로 변한다. 그것은 마치 한번 불에서 달구어진 쇠를 물 속이 집어 넣어 보았을 때 그 갈증하는 물의 소리로 인해 얼마만큼 뜨거워졌나를 인지하듯이, 그동안 나에게 일어난 변모(사고 방식, 가치관이 있어서)의 정도와 그로 인한 부대낌, 그리고 조화의 가능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 조국은 나에게 어떤 절대적 비교의 척도로 부각되어 온다. 처음 외국으로 떠날 때와 외국에서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의 긴장된 호기심은 그 강렬함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다.

비록 강의실, 기숙사 그리고 도서관을 맴도는 단조로운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비행기나 잘 알아서 할까하는 근심어린 부모의 눈을 뒤로 하고 떠났던 때와 다시 돌아갈 때의 사이에 이루어진 전환을 어렵잖이나마 느끼면서 나는 최소한 이런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다.

무엇보다 '아메리카나이즈 운운' 하는 말이 언저는 또한 프랑스에 민감해질 필요는 없겠다. 이미 20년 이상 관뉘어 온 나에게는 불과 2년 남짓한 세월로 인해 '확실히 동화작용'이 일어났을 리는 만무하니깐. 비록 보편성과 고귀성 사기를 좀 더 심하게 방황하는 '별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부류 속에 속하게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 불칸서에서 돌아오는 러시아 추학생은 혁명의 정열을 안고 돌아오는데 미국에서 돌아오는 한국 추학생은 매끈한 공리주의자들이 되어 돌아온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공리주의적 사고가 부족되어 있다면 좀 공리주의에 매료된 듯 어떨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공리주의냐에 있다고 본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 '코리아나이즈' 되어야 하는 여지는 많으니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들지 않는 점이 더욱 괴로운 애증의 눈으로 비칠지도 모르는 내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평화롭게 예전의 온도를 되찾는 쇠덩이같이 나에게 어쩌면 한번 달구어질 뒤에

남은 강인함이 깊이 스며들어 있기를 기대
한다.

존. 던의 시(詩)처럼 어느 누구도 외따로
떨어진 섬 일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
의 거대한 대륙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류애적인 체험과 그러나 결국은 단수로
키착되는 민족과 한 개인은 가능한 한 자
기충만이 이루어진 외로운 섬이어야 한다는
의식화 된 고독의 체험으로 내가 미국에서
느낀 것 모두를 간추릴 수 있겠다.

페이지에서의 계속)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이웃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이 지역이, 늘
어는 우리 교포나 학생들간의 불이 쌓여진
담을 허물고 대화의 성을 쌓아야겠다.
너와 나 사이에 완전한 담을 허물고 하나
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적당히 예쁜 담을 쌓고, 장미덩굴로 너백
게 장식하고서 아침 저녁 굶으며 인사
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

◆ (편) ◆ (집) ◆ (우) ◆ (기) ◆

▲ 우선 순서가 늦어진 데 대해 구차한(?) 사과와 변명을 해야겠다. 두 학기
의 긴장이 풀어지고 화창한 날씨가 밖에서 유혹한다는 봄학기지만,
최소한 금년 '시아틀' 날씨는 그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문제는 원고청락이
여의치 않았고 모두들 뜻깊은 불행에 동여야 할지 모른다. 그동안 회보지면에
중요한 문의를 해오신 여러 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두려운 회신에)와 사과를(늦어진데)
포한다.

▲ 뒤늦게 고안 학생회 및 특히 회보발간을 위해 고마운 도움을 주신
여러분을 소개해야겠다. 장정훈 박사 (20분) 이영주 형 (10분) Mr and
Mrs. Shim (10분) Mr and Mrs. Kloth (5분) 성민경 형 (5분)께
감사하며, 특히 아씨는 귀국하신 지상례씨의 배려로 한성기업
임상필 사장께서 100분을 희사하셨다.

▲ 이달 편집에도 서진영 형, 그리고 또 유재권 형씨에 폐를 끼쳤다.
두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편집을 위해, 특히 이수길, 최정민, 유창민,
이정복, 제현씨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셨음을 밝힌다. 또지와 컵을 위해서
백광호 형이 또 수고를 해주셨다.

▲ 아파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여러모로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께 짧은 말로나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는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崔 宰 元)